

# 양궁 올킬·펜싱 박상영 기적의 금...리우올림픽, 넌 감동이었어!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대한민국스포츠는 2016년 어느 해보다 바빴다. 8월에는 온 국민의 환호 속에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열렸고, 프로 야구에선 사상 처음으로 800만 관중을 돌파하는 등 양대 프로스포츠인 야구와 축구도 술한 화제를 만들어냈다.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10월 이후 불거진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부정권력이라는 동안 체육계에 마수의 손길을 뻗었음이 드러났고, 한국체육계는 씻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앞두고 병신년(丙申年)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한국스포츠 전반의 이슈들을 되짚어봤다.

하계올림픽 4개 대회 연속 톱 10 달성 유승민, 한국인 두번째 IOC 선수위원 최순실 국정농단...평창올림픽 빨간불



8월 펼쳐진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한국선수단은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로 종합순위 8위에 올랐다.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박상영은 결승전에서 '할 수 있다'는 주문을 걸며 기적의 역전승을 일궈내 감동을 날렸다. 스포츠동아DB

### 11 신고 속에 출범한 통합체육회

엘리트체육을 총괄하던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관장하던 국민생활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 통합한 뒤 3월 21일 등기를 완료하고 공식 출범했다. 양 단체의 통합은 25년만의 일이다. 그러나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문화체육관광부, 밑으로부터의 점진적 통합을 요구한 구 대한체육회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적잖은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3월 법정 출범하고도 새 통합체육회장이 10월에야 선출됐다는 사실은 통합과정의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10월 5일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첫 통합체육회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통합이 완료됐다.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892표 중 33%인 294표를 얻은 이 회장은 2021년 2월까지 체육행정 전반을 이끌게 됐다. 이 회장은 "모두가 함께하는 조화로운 통합체육회를 만들겠다"며 체육계의 화학적 융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2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리우올림픽

8월 브라질에서 펼쳐진 리우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수확해 208개 출전국(난민팀 제외) 중 종합순위 8위에 올랐다. 당초 목표로 내건 '10·10(금메달 10개 이상-종합순위 10위 이내)'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8위를 차지해 2004년 아테네대회부터 4회 연속 올림픽 '톱10'을 이루며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양궁과 태권도가 이번에도 효자종목 역할을 톡톡히 했다. 양궁은 남녀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까지 모든 금메달(4개)을 독식하며 사상 첫 전 종목 석권의 쾌거를 달성했고, 태권도는 중주국의 자존심을 지키며 금 2개, 동 3개 등 5명의 출전선수 전원이 메달을 목에 걸었다. 리우올림픽에서 한국선수단이 따낸 총 21개의 메달 중 9개가 양궁과 태권도에서 나왔다. 반면 유도과 레슬링은 '노골드'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112년 만에 정식종목으로 부활한 골프에서 박인비는 여자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며 국민들을 기쁘게 했다. 진중은 남자 권총 50m에서 올림픽 사격 종목

사상 첫 3연패에 성공했고,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박상영은 '할 수 있다'는 주문을 걸며 기적의 역전승을 일궈내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 3 유승민 IOC 선수위원 당선

2004아테네올림픽 탁구 남자단식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삼성생명 코치)은 리우올림픽 기간 중 현지에서 진행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선거에서 후보자 23명 중 2위로 당선됐다. 전체 5815표 중 1544표를 획득해 1603표를 얻은 펜싱의 브리타 하이데만(독일)에 이어 2위에 올랐다. 2000시드니올림픽에서 신설된 IOC 선수위원으로 한국인이 당선된 것은 유승민이 2번째로, 아테네올림픽 남자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이 2008베이징올림픽 때 처음 선출된 바 있다. 선수위원은 하계종목 8명, 동계종목 4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동·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 등 IOC 위원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유 선수위원은 한국을 대표해 부지런히 세계를 누비며

활동 중이다.

### 4 박세리 은퇴...필드 떠난 '영원한 골프 여왕'

세계골프계에 한국여성의 힘을 과시했던 '영원한 골프 여왕' 박세리는 올 시즌을 끝으로 필드와 작별을 고했다. '맨발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박세리는 골프채 하나로 국민에게 술한 감동을 선물했다. 1998년 US여자오픈에서 하얀 발을 드러내고 워터헤저드에 들어가 스윙을 한 장면은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시름하던 국민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1998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데뷔해 메이저대회 2승을 포함해 4승을 거두며 한국인 최초로 신인상을 수상한 박세리는 이후 19년간 통산 25승(메이저대회 5승)을 기록했다. 특히 2007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골프 명예의 전당에 가입했다. 올 8월 리우올림픽에서 여자대표팀 감독을 맡은 그녀는 '세리 키즈'의 대표주자인 박인비의 금메달을 이끈 뒤 10월 인천에서 열린 LPGA 투어 하나외환챔피언십을 통해 27년간의 골프인생을 마감했다.

### 5 '최순실 국정농단'의 직격탄 맞은 체육계

박근혜 대통령의 도덕적 해이와 무능에서 비롯된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로 체육계는 쑥대밭이 됐다. 최순실의 딸 정유리가 연루된 체육특기생 입시비리 문제가 터졌고,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앞세운 박근혜 정권은 승마계, K스포츠재단 등에 대기업이나 정부의 부적절한 자금을 끌어들었다. '체육대통령'으로 불렸던 김 전 차관은 앞장서서 비리를 주도하거나 묵인했다. 여기에 더해 동·하계올림픽의 간판스타인 '피겨 여왕' 김연아와 수영스타 박태환은 각각 정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약물복용에 따른 징계가 끝난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며 권력에 취약한 한국체육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 6 뼈저거린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2018년 2월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는 동계종목 관련 각종 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양호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5월 석연치 않게 교체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에는 자진사퇴로 포장됐지만, 조 전 위원장이 최순실측의 각종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까닭에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회 개막까지 채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위원장의 교체는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제적인 로드맵이 흔들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더욱이 최순실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니 뒤 평창동계올림픽이 최순실 일당의 놀이터가 될 뻔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각종 스포츠 협상이 난항에 부딪히는 등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김도훈 기자 dohone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 주말공감

# 가족과, 연인과 떠나는 해돋이 쫓대바위 갈까, 호미곶을 갈까

### 새해에 가볼만한 전국 해돋이 명소

그 어느 해보다 파란만장했던 2016년 병신년도 이제 이를 남겼다. 추위전 날씨 속에 어수선한 시국과 A사태로 여는 때보다 차분해진 연말이지만,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첫 해돋이를 보며 새롭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자녀와 함께 당일 또는 단기 여행으로 가볼만한 전국의 해돋이 명소를 소개한다.

#### ●애국가 영상의 그 곳 '동해 추암 쫓대바위'

일출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명소. 강원도 동해 추암해변 쫓대바위다. 애국가 영상의 일출 장면에 등장하는 곳이다. 아담하지만 예쁜 백사장 파도, 기암괴석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곳의 상징 쫓대바위에 통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가 살짝 걸리는 것이 장관이다. 삼척선 추암역이 가까워 교통편도 좋다.

#### ●전국 최대 소망우체통 '울산 간절곶'

간절곶조조반도(長絶角岬半島·간절곶에 해가 뜨자 한반도의 아침이 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돋이가 유명하다. 1920년 처음 불

을 밝힌 17m 높이의 간절곶 등대가 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고 방문기록을 남기면 등대에 올라갈 수 있다. 높이 5m, 너비 2.4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체통인 소망우체통이 있다. 우체통 안으로 들어가 엽서를 쓸 수 있다.

#### ●일출 포토존 상생의 손 '포항 호미곶'

동해곶, 장기곶으로도 불렸으나 2001년 '호랑이 꼬리'라는 뜻의 호미곶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섬을 뒀 한반도 내륙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다. 바다와 육지에 화합의 의미를 담아 설치한 '상생의 손'이 일출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전국에서 가장 큰 '대보등대'라는 별칭의 경상북도 기념물 제39호 호미곶등대를 비롯해 국립등대박물관 등이 있다. 명물 물회를 비롯해 개북치, 고래고기 등을 맛볼 수 있어 먹방 투어족에게 인기 높은 포항 죽도시장도 필수코스다.

#### ●신라의 기운을 함께 '경주 대왕암 문무대왕릉'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 30대 문무왕의 수증릉. 동해구의 작은 바위섬인 대왕암 일대로 일출 명소다. 대왕암의 자연 경관과 일출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백미다.



우리국토 가운데 섬을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포항 영일만 호미곶에서 상생의 손과 함께 카메라에 잡힌 해돋이. 새해 일출을 보며 마음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는 해돋이 투어는 코스에 따라 당일 또는 1박2일 정도의 단기여행으로 떠날 수 있는 가족여행으로 인기가 높다. 스포츠동아DB

#### ●대한민국 3대 기도처 '남해 금산 보리암'

남해 금산은 강화 보문사, 낙산사 흥련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기도처로 꼽힌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중 유일한 산악공원이다. 등산객이 소망을 담아 쌓은 돌탑들을 만날 수 있다. 인근 가천 다랭이마을에서는 설출산의 산비탈을 깎아 바다를 바라보며 조성한 180층 계단식 논을 볼 수 있다.

#### ●호젓하게 즐기는 해안절경 '고성 읍바위'

속초에서 동해안 최북단 고성까지 7번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가진항을 지나 공현진 해변이 나온다. 이 곳에 바다 위로 솟아오른 읍바위가

있다. 읍바위의 울퉁 파인 공간 사이로 떠오르는 해가 매력이다. 추암, 강릉, 정동진 등 해돋이 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조금 여유롭게 일출을 즐길 수 있다.

#### ●서울에서 해돋이 감상하고 싶다면 '하늘공원'

만약 시간을 내 해돋이 여행을 할 여유가 없다면 서울 마포구 삼암동 하늘공원을 가자. 진입로가 좋고, 의외로 편찮은 해돋이를 볼 수 있다. 아차산도 서울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명소다. 산세가 완만해 오르기가 어렵지 않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책 읽는 주말

### 고흥군의 설화들을 책 한권에



#### ●고흥설화 (고흥군)

반도의 토양 위에서 예부터 이야기가 풍성했던 곳, 전남 고흥. 유구한 세월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술한 설화가 태어났다. 전래의 이야기는 세상과 삶에 안기는 작은 교훈이면서 또 다른 등대가 된다. 그 설화의 한 자락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고흥야담(高興野談)', 고흥군과 함께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 및 사진부 기자들이 고흥의 곳곳을 찾아 설화 그리고 그 공간에 얽힌 설화의 이야기를 전한다. 올해 2월23일자부터 격주로 스포츠동아 지면에 연재한 '고흥군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에 실린 기사를 토대로 사진과 삽화를 추가해 재구성한 '고흥야담'은 팍팍한 삶에 교훈의 안내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16년 자해의원이 들어선 지 100년, 한센인들의 아픔이 여전히 소름돋고 그 섬사람들의 눈물과 한 서린 이야기도 담았다. 책은, 지독한 편견으로 섬사람들을 대하는 섬 바깥사람들이 이제 온전히 그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파스한 창이 되리라.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사람들을 위로하는 시 120편



#### ●너를 사랑했던 시간(이근대 저·김민경 그림 | 쌤앤쌤)

8년간 상처받은 마음들을 다독여온 사람이 있다. 매일 SNS에 짧은 글을 공유하는 이근대 시인이다. 사람의 마음을 흔치는 아름다운 글귀들로, 어느덧 팔로어가 20만명에 이른다. 이 책은 2만여편의 주옥같은 글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준 120편을 엄선해 묶은 책이다. 시인의 글들은 SNS상에서 '살의 지침서'라 불리며 널리 공유됐다. 곳곳에서 감성작가 김민경의 그림도 만날 수 있다. 양형도 기자



에버랜드 카운트다운 불꽃쇼

### 불꽃축제와 함께 정유년 카운트다운을...

서울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31일 밤 10시 30분부터 '아듀 2016, 웰컴 2017'을 연다. 힙합 듀오 뉘뉘, 보컬그룹 스위트소우의 미니콘서트 가 있고, 2016년 롯데월드에서 진행한 각종 공연 가운데 인기가 높았던 '삼바 투게더 오프닝', '마스크 쇼 엔딩', '할로윈 통제구역M', '신데렐라의 크리스마스 홀리 나이트' 등의 하이라이트를 모아 공연한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는 31일 밤 카운트다운 불꽃쇼 '아듀 2016, 웰컴 2017'을 진행한다. '플

레이 유어 메모리', '러바오의 모험', '문라이트 퍼레이드' 등 인기공연 하이라이트 무대와 함께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1만여 발의 불꽃을 발사한다. 경기도 광주 서브원 곤지암리조트는 31일 밤 스키장 야외무대에서 LG트윈스 치어리더의 공연과 패트라의 핫볼 스키 퍼레이드, 불꽃놀이를 진행한다. 썬킹템 제주 호텔은 투숙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2017 K 카운트다운 파티'를 진행한다. 31일 밤 10시30분부터 아드림 라운지&바 '더 뷰'와

루프탑 샴페인 바 '클럽 하우스' 등에서 진행하고, 제야의 종 타종 후에는 풍선에 소원을 날려 보내는 이벤트도 있다.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제주는 31일 1층 아트룸에서 신년맞이 카운트다운 이벤트 '헬로 2017 파티'에서 투숙객들이 자정까지 즐기는 다이나믹 게임존을 운영한다. 투숙객당 게임 티켓 10장을 제공해 풍선다트와 림보, 테이블 축구, 플랫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 즐길 수 있다. 서울 태평로 호텔 더 플라자는 '뮤지션×특급호텔' 컬래버레이션을 테마로 김태우와 조성모의 공연 가운데 선택해 디너코스와 함께 즐기는 송년 공연을 연다. 김재범 기자